

문헌조사를 통해 본 기독교 경제윤리의 주요 문제의식과 분야에 대한 연구

황희영(영산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1. 기독교 경제윤리의 의미
2. 연구 방법론과 의의 및 한계

II. 문헌분석

1. <개인-인식> 분야
2. <개인-적용> 분야
3. <기업-인식> 분야
4. <기업-적용> 분야
5. <국가-인식> 분야
6. <국가-적용> 분야

III. 나오는 말

• ABSTRACT •

Since a little more than two decades ago, we have been getting understanding of Christian ethical issues in economy. These issues range from teachings of Christian values in economy by Words of Bible, applying of biblical principles into business management to economic injustice on global scale.

However, there are so many authors - economists, theologians, business people, church ministers - having as many fields, ideas and approaches concerning Christian ethical issues in economy. So it would be better if we have a comprehensive map, based on literature survey, so that we may use this map for a better communication among people. This map will help us understand relative context and position of issues among the literature.

To deal with the literature of Christian ethics in economy, we use two criteria: (1) level of topics - individual, organization, or nation - and (2) focus of issues - understanding or applying. From these criteria, we can have six areas from <individual-perception> to <nation-application>.

According to the mapping, we found out some interesting results; on both individual level and firm level, most of the issues converge toward 'stewardship'; Korean authors focus on understanding biblical principles of wealth, poverty, or justice while American authors focus on how to deal with debt or business management processes.

And there is a tension among six areas. Approaching <individual-perception> area, people may rather stay around the church than taking part in social issues, while when they get nearer to <nation-application> area, they may indulge in policy making and social action at the cost of intimacy with God. To solve this tension,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starting point of Christianity is, in any area, righteous relationship with God and being guided by the Spirit.

Key Words: christian ethics in economy, stewardship, debt issues, biblical economics, alternatives to economic system

I. 들어가는 말

성경적인 학문을 지향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경제·경영 분야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부동산 투기, 물가 상승 그리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팽배하게 된 시기였다. 1990년대에 들어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IMF라는 이름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으로 경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가치 위에 경제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즉 기독교 경제윤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학문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기독교 경제윤리의 논의에는 매우 광범한 배경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학과 경영학 전공자들이 다수를 이루지만 신학자들도 많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경영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 모두는 현금이나 소비 생활과 같은 개인 차원의 문제로부터 국가 경제 및 전 지구적인 경제 시스템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졌다.

지난 20여 년의 시기는 특별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라는 대결구도가 무너졌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바로 최근 일어난 세계적 금융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 경제윤리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본 올바른 경제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쉽게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수만큼 다양한 문제의식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일관된 대답을 하기 어렵다. 어쩌면 하나의 일관된 대답을 찾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본 논문은 선불리 그 대답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누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 논의들의 상호 관련 맥락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며 또 가능하다면 기독교 경제윤리의 문제의식에 대한 일종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각 문헌에 상대적 맥락을 보이고 앞으로의 새로운 논의의 단서를 제시하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독교 경제윤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1. 기독교 경제윤리의 의미

기독교 경제윤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용어의 의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경제, 그리고 윤리라는 세 단어의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자.

가) 기독교

기독교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主, Lord)로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부활과 재림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는 또한 구약과 신약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기초를 두며, 그러므로 ‘기독교윤리’는 때로 ‘성경적 윤리’라고도 한다.¹⁾ 실제로 기독교 경제윤리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에 관련하여 직접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

1) 우리는 때로는 용어 설명에 있어 학문적 엄격함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다양한 분야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의미로도 기술할 것이다.

을 삶 속에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 경제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는지에 대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 경제

경제는 재화와 부를 다루는 학문의 대상인 동시에 개인의 삶 속에서 재화 및 부가 운영되는 경험적 과정을 말한다. 개인의 재화 및 부의 소유와 사용으로부터 나아가 국가 차원의 경제 정책과 운영까지 모두 경제에 속하며 국가 간의 교역 및 그를 규율하는 제도도 포함된다.

또한 우리가 현재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를 살고 있지만 물질 교환에만 경제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실체로서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한 것이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재화와 부를 매개로 한 인간에 관련된 문제의식이 보다 더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다.²⁾

그리고 경제는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학문적으로는 경제학과 경영학이 분리되어 있지만 경영은 재화 및 부를 창출하는 실제적 과정을 다루며 그 가운데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다. 기업 내에서 종업원에서 최고경영자에게까지 각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주어진 역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재무, 생산 및 판매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인다.

2) 예를 들면 소득보다는 소득의 결핍상태로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빈곤이 중요한 문제의식이 된다.

다) 윤리

경제학자 센(Sen)은 고대로부터 경제 윤리가 사회적 성취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³⁾ 그에 의하면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바를 알고 실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윤리는 경제 및 기업 경영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인식과 행위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사회적인 성취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또한 기독교 경제윤리는 결코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행한 일들이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만큼 역사적 과거를 영적인 현재로 만드는 것이 있을까. 성경은 탁월한 교과서이다. 그러나 윤리에는 현재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야만 하는 요소들도 있다. 거기에는 현재에만 존재하는 경제적 행태와 제도들이 있다.

따라서 이 모두를 포괄하여 우리가 다루게 될 기독교 경제윤리의 문제의식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정의는 “주어진 한 시대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그 말씀에 따라 경제의 광범한 영역에서 각 개인과 기업 및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를 말한다.

2. 연구 방법론과 의의 및 한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출판된 기독교

3) Sen, A.(1987), *On Ethics and Economics*, 박순성·강신욱 역, 『윤리학과 경제학』(서울: 한울, 1999), 19.

경제윤리 관련 문헌들, 특히 책의 형태로 된 저작물들에 나타난 문제의식들을 모아 그들의 상호 맥락 관계와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⁴⁾ 국내 필자에 의해 저술된 자료와 번역된 자료를 다 포함한다. 번역물을 포함하는 이유는 번역은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번역 저작물의 유통은 그 안에 담긴 내용(지식) 또한 유통되도록 만들므로 우리 자신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 자료들을 기독교 경제윤리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 수준과 실천 방법에서의 주요 이슈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야들을 나누었다. 이 분야들은 지도(map)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영역과도 같다. 이러한 맵핑(mapping) 방법은 문헌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기독교 경제윤리를 이해하는 대상의 수준이 개인이거나 혹은 기업이나 국가 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경제 행위 주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윤리적 접근은 인식과 행위의 관계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분야를 나눌 수 있는 두 개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다.

가) 첫째 기준: 기독교 경제윤리의 문제의식의 인식 대상의 수준

조사된 문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필자가 이해의 대상을 개인 수준에서 다루는지, 아니면 기업 혹은 국가나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개인 수준에서는 성경적 부에 대한 정의와 의미, 청지기로서의(stewardship), 부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형성된 개인의 믿음과 태도, 개인 재정 관리와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반면 기업 수준의 인식은 성경 말씀이 기업 경영에 적용될 수 있는가,

4) 조사된 자료는 모두 참고문헌에 실려 있다. 물론 이 목록이 문자 그대로 국내에 출간된 “모든 자료들을 뜻하지는 않는다. 필자에게는 지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그러므로 앞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독교윤리를 경영의 목표로서 수용할 수 있는가, 재무나 마케팅과 같은 관리 과정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기업의 역할로서의 선교 활동과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공동체 차원의 인식은 한 국가 혹은 국제적인 경제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는 빈곤, 구조적 불의, 경제 체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이해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 둘째 기준: 인식과 실천적 적용 사이의 구분

기독교 경제윤리의 인식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성경적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연결된다. 문제의식의 인식에 대한 문헌만큼 적용에 관한 문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저자의 문제의식의 인식이 동 저자의 다른 저작에서 실천과 적용으로 발전한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한 개의 저작물 내에서 인식과 실천을 동시에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각 저자는 기독교 경제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념과 의미, 그리고 해석에 관하여 성경적이며 학문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거나 - 인식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거나 - 혹은 실천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이며 그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문제해결 과정 및 적용되어야 할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면 조사된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그림 안에 각자의 상대적 위치를 갖게 된다.



<그림 1> 문헌조사를 통한 기독교 경제윤리 문제의식의 맵핑

<그림 1>에 의하면 문헌을 모두 6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재화 및 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해 개인차원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인식의 문제(개인-인식)로부터 국가 및 사회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국가-실천)까지 상대적인 위치를 정할 수 있다.⁵⁾

이제는 위의 <그림 1>의 원점에서부터 한 영역씩 단계별로 각 영역에 속한 문헌들이 말하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자.

II. 문헌 분석

1. <개인-인식> 분야

인식(perception)이란 사물을 지각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해석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 인지(cognition)하는 -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식 과정에는

www.kci.go.kr

5) 이러한 맵핑의 타당성은 독자의 공감 여부에 달려있다.

필연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라는 문제가 개입된다. 믹스는 시장이 어떠한 신관(神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⁶⁾ 기독교 경제윤리의 인식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와 “돈이란 (또는 富란) 무엇인가? 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전 6:10a)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구절이다. 이러한 수용의 내면의 인식은 악의 근원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 맘몬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돈을 선택할 것인지 정해야만 한다는 것⁷⁾ 등이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경제에 대하여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점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의 소유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주요한 인식의 틀로서 세 가지가 도출된다. 첫째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은혜로서의 부의 관점, 둘째 그 부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맡아 관리하며 사용한다는 청지기 의식, 그리고 셋째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의 사용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한다는 구원의 목적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위의 문제의식과 관점들을 망라하여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준 칼뱅(Calvin)의 청지기 의식이다. 청지기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설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부를 맡아 관리하는 자로 비유된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임의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므로 탐욕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인의 부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주인의

6) Meeks, M. Douglas(1989),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홍근수·이승무 역, 『하느님의 경제학』(서울: 한울, 1998), 10.

7)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b).

뜻을 묻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할 것이다.

1950년에 “L’homme et l’argent (인간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의 선구적 저작을 남긴 엘뤼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등식이 미국사회에 깔려있음을 지적했다.⁸⁾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욥이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식하여 부의 크기와 축복 사이의 등식을 매기는 것을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여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고파는 것은 사단의 법칙임을 매우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큰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하신 구원의 본질임을 말한다.⁹⁾

엘뤼이 말하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은 영적인 것으로서 그는 궁핍의 문제가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 행하여진 경제적인 방법, 체제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 정치적인 활동 등에 의한 체제 중심의 해결책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¹⁰⁾

그는 오히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교육과 그를 통하여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한다.¹¹⁾ 이러한 교육에 관해서는 임성일도 경제는 신앙의 한 부분이므로 신앙과 경제가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¹²⁾

8) Ellul, J.(1950), *L’homme et l’argent: nova et vetera*, 2e édition complétée, 양명수 역, 『하나님이나 돈이나』(안양: 대장간, 1991), 38~39, 그리고 2장.

9) Ibid. pp.112~114.

10) Ibid. pp.54~55, p.138, pp.207~208. 이러한 태도는 뒤에 보게 될 <국가-적용> 분야의 문제의식과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유발한다.

11) Ibid. pp.164~174.

12) 임성일, 『크리스처노믹스 - 크리스천의 경제관과 경제생활』(서울: 쿰란출판사, 2004), 3부.

칭지기의식은 또한 주인과 회계할 때 결산 시의 책임(accountability, 마 25:19)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결산 시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 사는 동안의 부의 관리와 사용이 영원한 의미를 가짐을 말한다. 이 점에서 알콘은 우리가 주와 함께 영생을 산다는 것을 믿으면 돈과 소유를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부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¹³⁾

<개인-인식>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문헌 중에서 하트만은 성경에 경제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¹⁴⁾ 손경구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현대 경제생활의 충동적 측면, 특히 광고에 대한 충동적 반응에 대해 경계하라고 한다.¹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의 주인이시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부를 거저 주신다는 것과 칭지기로써 그 부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개인의 부의 소유에 관해서는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대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동호는 한국의 기복적 신앙의 태도와 터부적인 유교주의¹⁶⁾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어떻게 신실한 부의 관리자가 될 것인가의 개념을 청부(淸富)라는 말로 제시하고 있다.¹⁷⁾ 이에 대해 김영봉은 부의 본래적인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¹⁸⁾ 오히려 영성적 가난¹⁹⁾의 유익을 택하는 것이

13) Alcorn, Randy(2003),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김신호 역, 『돈, 소유, 그리고 영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그리고 Alcorn, Randy(2001), *The Treasure Principle*, 유정희 역, 『부자 그리스도인』(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4) Hartman, Jack(1983), *Trust God for Your Finances*, 오태용 역,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서울: 베다니출판사, 1994).

15) 손경구, 『돈과 영적 성숙』(서울: 두란노, 2002).

16) 돈은 속된 것이므로 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뜻이다.

17) 김동호, 『깨끗한 부자: 청부(淸富)』(서울: 규장, 2001).

18)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기도 되는가?』(서울: IVP, 2003).

19) 하나님을 추구하므로 가난에 이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Ibid. p.53.

그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철수는 김영봉의 의견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이 두 의견은 부의 ‘소유’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요소로서 기독교 신앙은 부 혹은 가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즉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보다 근원적인 관점과는 동떨어진 소모적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인식> 영역에서 문헌의 수로는 적지만 독특한 의미를 가진 자료들로서 미국의 경영자들의 일대기를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록펠러나 워너메이커와 같은 큰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부를 이루는 과정의 뒷면에 영적 성장 과정과 함께 대가를 지불하는²¹⁾ 삶이라는 공통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²²⁾

<개인-인식> 차원의 문제의식은 기독교 경제윤리의 핵심으로서 모든 다른 수준의 논의와 적용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다른 분야에서의 문제의식과 적용상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개인-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보통의 학문 체계가 ‘미시적 vs. 거시적’ 혹은 ‘이론 vs. 응용’과 같은 별개의 분석 수준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삶을 인도받기 때문이며,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각 개인의 인식이 -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의 문제가 - 그 자신만의 실천적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교개혁 이후 루터, 칼뱅 그리고 웨슬리와 같은 역사 속의 신앙의 거장들은 매우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다. 그

20) 박철수, 「돈과 신앙」(서울: 예찬사, 2001), 제4장.

21) 부의 형성에는 영적 성장이 있었으며 그 과정이 결코 쉽고 순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훈련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왔다는 의미이다.

22) Segall, Grant D.(2001), *John D. Rockefeller: Anointed with Oil*, 전은지 역,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서울: 베다니출판사, 2001). 전광,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먼저 그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애를 썼다.²³⁾ 놀라운 점은 이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여전히 현대에서도 기독교 경제윤리의 문제의식의 뿌리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개인-인식>을 출발하여 <개인-적용>의 문제의식, 즉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삶 속에 적용되는가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2. <개인-적용> 분야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구체화 되는 것은 그의 신념체계의 토대 위에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경제윤리, 즉 경제적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앞 절의 <개인-인식>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대부분의 인식 요소들의 배경이 되는 대상에 적용될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자신의 삶을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삶에 적용되는 영역의 넓이나 깊이, 실제적 적용 방법 및 과정은 각 개인의 특성과 차이점을 반영할 것이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개인의 삶의 적용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소득, 소비생활, 현금, 재정 관리, 재정의 나눔 등이다. 이들 영역에 대해

23) Biéler, André(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김흥기, 『존 웨슬러의 경제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참조.

많은 문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원리들을 찾고 정리하여 지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알아보자.

가) 소득

소득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다. 이에 대해 누구나 동의하는 점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의 소유를 거저 주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것이다.²⁴⁾ 노동은 비록 죄의 대가이긴 하지만 저주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과정이므로 직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거나 혹은 거룩하지 못한 직업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은 <개인-적용>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경영-인식> 영역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한 개인은 대부분 기업(조직)의 형태를 띤 사업체(기관)에서 활동함으로써 그가 필연적으로 경영자-관리자-종업원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그 과정의 결과로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용>의 주된 대상 영역은 소비자로서의 특성이 나타나는 가정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소비생활: 빛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우리는 누구나 소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예를 들면 지나친 낭비를 피해야 한다든지 혹은 어느 정도는 저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아는 것을 언제나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

24) 신명기 8:18.

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갚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채무(debt)의 문제가 <개인-적용>의 거의 핵심 문제다.

빚 문제의 심각성은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버켓은 1970년대 말 시점의 미국의 상황을 전하면서 “실패로 끝난 결혼의 70% 이상에서 갈등의 첫째 근원은 돈이었으며 여기서 돈 문제란 지불 능력을 넘어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문제 라고 말한다.²⁵⁾

빚 문제는 삶의 여러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구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잠 22:7). 라고 할 때 종(slave)은 현대 사회에서 영적인 노예 상태를 말하며 개인의 삶의 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온전한 십일조와 헌금의 어려움, 청지기로서의 역할의 상실 등이 따른다. 이들 문제를 보면 빛은 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유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손경구는 궁극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²⁶⁾ 그런데 국내 저자들에게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 선언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빚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훈련 교재나 사례를 분석한 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는 대부분 번역서에 의존해왔다.

국내에 대표적으로 소개된 저자들은 버켓, 아반지니, 힐 · 피츠 등이

25) Burkett, Larry(1977), *What Husbands Wish Their Wives Knew About Money*, 김의자 역, 『가정 경제의 지혜』(서울: 보이스사, 1994), 16. 이 책은 1977년에 출판되었다.

26) op. cit. p.78.

다.27) 이들은 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빚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신용카드 없애기, 배우자와 빚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 하기, 건전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욕구의 절제, 소득 규모에 맞는 예산 세우기 및 십일조와 헌금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들 중 특이한 예로서는 아반지니는 ‘빚’에 관해 ‘채무의 영’으로 부르면서 빚 문제 해결을 영적인 대결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28) 빚을 갚는 행위를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등의 실천적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빚을 저서 삶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다) 십일조와 헌금

십일조와 헌금에 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논의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십일조와 헌금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질문에 대해서는 비록 현대이지만 십일조를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 사람들로부터 십일조에서의 10%라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며 헌금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일종의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29)

십일조의 의미의 해석 및 적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또 다른 동의 요소는 헌금의 액수와 축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27) 참고문헌 목록에서 Burkett, Avanzini, 그리고 Hill and Pitts 등을 참고하십시오.

28) Avanzini, John(1990), *War on Debt: Breaking the Power of Debt*, 송원섭 역, 『채무의 영을 결박해야 산다』(서울: 베다니출판사, 1998).

29) 박철수(2001), op. cit. 3장과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다는 것이다.

아반지니는 “십일조와 헌금이라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그릇된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 채 지낼 수 있음 을 지적한다.³⁰⁾ 그에 따르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되었을 때, 두 마음을 품을 때, 불의와 숨겨진 죄가 있을 때, 형제들과 불화할 때 등등 십일조와 헌금이 온전하게 드러지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열거한다. 아반지니의 공헌은 우리가 십일조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 의 문제에 집중하여 해석하고 있을 때 십일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변화되어야 할 전반적인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재정 관리

개인의 재정 관리의 핵심은 빚을 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소득을 통해 주신 재정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관리하느냐라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빚을 갚고 자유롭게 되기 위한 재정 관리,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정 관리가 있다.

이 영역의 문헌 역시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번역 자료들이다. 주된 저자들은 위의 소비생활에서 소개된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이면서도 특징적으로 여겨지는 점은 먼저 이들이 대부분 미국인이며,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해 매우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 도구의 훈련을 권면하고 있고, 빚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정이 보호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 그리고 필요 예산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재정의 사용을

30) Avanzini, John(1992), *It's not Working Brother John*, 오테용 역, 『십일조를 잘 해도 왜 안 풀리죠』(서울: 베다니출판사, 1997), 10~12.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등이다.

힐·피츠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자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특별히 개인 재정 관리의 기초로 재정의 ‘원을 닫기’를 가르치고 있다.³¹⁾ 원을 닫는다는 개념은 한 개인(가정)이 필요한 재정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로부터 필요가 채워지는 것의 경험과 이에 대한 감사, 더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 넘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흘려보내기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자라면 절약하고 남으면 저축한다는 재정 관리의 상식을 뛰어 넘어 궁극적으로 어떤 재정도 성경적 원리 하에 다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마) 재정의 나눔

만약 한 개인(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고 넘친다면 넘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재정의 나눔이다. 이것은 소득이 소비하고 남은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분을 어떻게 현금할 것인가라는 느슨한 해석부터 소득 수준의 고하에 관계없이 재정의 원 닫기를 했을 경우에 필요 이상의 재정 수입의 처리를 다루는 엄격한 해석까지 가능하다. 이런 다양성 가운데 성경적 나눔의 공통 요소는 청지기의의식으로서 청지기는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눔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넘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의 이동이다. 청지기는 그 넘친 크기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관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나눔은 단순히 주고받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정관리 관련 문헌들에서 자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의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인 것을 푸는 것이라는 언급이다.³²⁾

31) Hill, Craig and Earl Pitts(2001), *Wealth, Riches and Money: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허령 역,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서울: 예수전도단, 2004), 6장.

32) Cunningham, Loren(1991), *Daring to Live on the Edge*, 문효미 역, 『벼랑끝에 서는

대체로 본 절에서 소개된 문헌들이 부분적으로 재정의 나눔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또 한 번 힐 · 피츠에 의지하면 재정의 나눔에는 ‘심고 거두기’, ‘의의 열매를 더하기’, ‘베풀기’의 세 가지가 있다.³³⁾ 심고 거두기는 배가된 추수를 거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의의 열매 더하기란 관계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빛과 맘몬의 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할당된 것, 그리고 베풀기는 주님이 지시하시거나 또는 스스로 결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용>에서 가장 극단적인 적용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문헌은 커닝햄의 경우이다. 그는 모든 재정의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재정을 사용하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삶을 ‘계기비행’하는 것에 비유했는데,³⁴⁾ 재정의 운영을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외부의 지시에 따라 계기판만 보고 비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음성에만 의지하여 살라고 말한다.³⁵⁾ 극단적이라고 보이는 반면 그의 저작에는 많은 경이로운 체험들이 소개되어 있다.

<개인-적용>의 문제의식이 구약에서는 대체로 노동(임금)이나 상거래에 관련하여 또 특별히 율법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현대의

용기』(서울: 예수전도단, 1993), 71에서 저자는 심지어 “남에게 주라는 말씀을 따르는 일은 영적 전쟁 행위이다. 라고까지 말한다. 묶인 것을 풀다는 것은 마 16:19 참조. 재정의 나눔을 결박을 끊음(bondage breaking)의 의미로 제시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Marshall, Rich, *God @ Work Volume 2: Developing Ministers in the Marketplace* (Shippensburg: Destiny Image Publishers, 2005), 6장을 참고하시오.

33) op. cit. p.260과 9장.

34) op. cit. p.76.

35)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이라고 짐작되는 저자의 매우 어린 시절의 경험이 Cunningham, Loren(1980), *Is That Really You, God?*, 예수전도단 역,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서울: 예수전도단, 1989), 21에 소개되어 있다.

경제인에게는 소비생활과 그에 따른 재정 관리에 집중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심이다. 고대와 현대의 산업구조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용> 영역은 <개인-인식>에 뿌리를 둔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실제적 열매를 맺는 부분이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기업-인식> 영역은 만약 기업조직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과거였다면 <개인-적용> 부분으로 다루어졌을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현대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 기업(조직)의 수준으로 올라가보자.

3. <기업-인식> 분야

기업 차원에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성경적이며 윤리적인 인식의 기초는 무엇일까? 실제에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복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지난 20여 년의 기간은 왜곡된 인식이 바로 잡혀 나가며 진정한 성경적 경제 윤리에 대해 점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시기로 보인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인식의 전환은 전통적인 기업의 기능과 역할로부터의 확장, 경영 관리 과정에 대한 경영자와 종업원의 새로운 역할의 자각 및 확장, 그리고 성공에 대한 정의의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가) 경영자의 역할과 기능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이 가장 쉽게 동의하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그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steward)’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뜻에서는 누구나 청지기라고 할 수 있지만 경영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정의 흐름을 실제적으로 다루

고 있으므로 청지기의식이 뚜렷하다. 하나님의 재정을 맡았다는 의미는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일으키는 것,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재정 사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공’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는가라는 물질적이며 양적인 척도로 기업의 성공 여부가 평가되지 않는다.³⁶⁾ 이는 전통적으로 경영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라고 가르치는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극적인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영의 목표의식의 변화는 실제 경영 과정에서 경영자의 리더십, 의사결정 과정, 통제 방식,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원리와 방법, 사회적 책임 등의 경영관리 요소들의 정의를 또한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³⁷⁾

성공적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경영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이 과정은 먼저 경영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소유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결정한다는 단계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³⁸⁾

청지기의식을 통하여 경영자들은 자신의 삶이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만족감과 충실도를 올려준다.

36) Tamasy, Robert J. (ed.) (1991),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대구 기독교 경영 연구회 역, 『완전한 성공(1): 일터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서울: CUP, 1999), 1장~4장.

37) Ibid. 5장 이하. 그리고 Burkett, Larry(1990), *Business by the Book*, 김종근 역, 『성경 속의 경영학』(서울: 엠마오, 1995) 참조.

38) Beckett, John, *Loving Monday* (IL: Downers Grove, IVP, 1998). 저자는 본문에서 언급한 과정들을 거치며 일어난 자신의 경험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경영자들을 비즈니스의 세계로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도 함께 부여하신다는 새로운 인식의 접화는 리치 마샬로부터 시작되어³⁹⁾, 에드 실보소⁴⁰⁾, 피터 와그너⁴¹⁾ 등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으로 교회 내에서 성/속(聖/俗; sacred/profane)의 구분이 있었는데 목회자는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담당하며 반면 성도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의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직자/평신도와 같은 분리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 부르심을 위한 성령의 은사가 부여되며 입혀지는데 이것을 “‘왕’의 기름부으심 이라고 한다.⁴²⁾

위와 같은 새로운 인식의 발견이 그리스도인 경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터(marketplace)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지도록 경영 목표와 관리 과정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은 기업 내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피터 와그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 조직을 ‘일터에서의 교회’로 그리고 경영자들을 ‘일터에서의 사도(workplace apostle)’라는 말로까지 표현하고 있다.⁴³⁾

39) Marshall, Rich(2000), *God @ Work*, 이선희 역, 『왕의 사역』(서울: 서로사랑, 2005).

40) Silvano, Ed(2002), *Anointed for Business*, 조성국 역, 『사업을 위한 기름부으심』(서울: 순전한 나드, 2004).

41) Wagner, C. Peter(2006), *The Church in the Workplace*, 이건호 역,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서울: WLI, 2007).

42) Marshall(2000), op. cit. 1장.

43) op. cit. 1장과 2장.

나) 관리자 및 종업원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바뀐 만큼 관리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경영자의 기능을 대리하여 자기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으나 추닝⁴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전문적인 관리자들로서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모든 전문 분야에서 한편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분야에 있는 회사 밖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수준과 범위는 경영자와 전혀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수준의 정직성, 책임성, 신뢰,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이들은 자신의 직급에 맞는 재정 운영의 권한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실제적인 관리 과정은 이들에게 달려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하며 또 실제로 자주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이 문제들을 위한 지침으로는 때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비교적 객관화된 성경적 규범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주관적 해석을 해야만 하기도 한다.⁴⁵⁾

다) 공간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공간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기업이 흔히 돈을 버는 곳, 혹은 돈이

44) Chewning, Richard C. (ed.) (1990),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서울: IVP, 1993).

45) Chewning, Richard C. (ed.) (1989),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Foundations*, 로고스경영연구원 역, 『성경의 경영 원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3부에서 해석상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룬 두 편을 글을 실고 있다.

거래되는 곳(시장)이라는 인식은 기업을 속된(profane) 공간으로 이해하는 쪽에 가깝다. 반면 성경적 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문헌이 “일은 신성하다 (work is sacred) 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 공간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다스리라 (radah)라는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 활동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곳⁴⁶⁾, 기업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기회를 가지며 일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제도화한 곳⁴⁷⁾,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⁴⁸⁾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을 선교적 공간, 즉 사업장 내에서 혹은 사업을 매개로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확장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한국의 기업들에서 강한 경향을 보인다.⁴⁹⁾

성경적 경영에 대한 초기의 저작들에서 과연 기업 경영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가? 라는 논의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경영자와 종업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기업이라는 공간에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의 인식의 확장은 놀랍다. 이전에 예수님을 경영자의 모델로 보는 개인의 묵상 차원의 저술⁵⁰⁾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윤리적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명제를 제시함은 물론 기업이 따라야 할 절대 (윤리적) 가치가 있다고까지 말한다.⁵¹⁾

46) Chewning, Richard C.. John W. Eby, J. Roels(1990), *Business through the Eyes of Faith*, 안동규 · 한정화 역,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서울: IVP, 1995), 19.

47) Ibid. p.19.

48) Shorto, Russel, Faith at Work, *New York Times*, Oct. 31, 2004.

49) 방선기, 「기업경영과 하나님 나라」(서울: 엠마오, 1994), 35. 그리고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홈페이지 www.cmbc.or.kr 참조.

50) 예를 들면 Jones, Laurie Beth(1995), *Jesus CEO: Using Ancient Wisdom for Visionary Leadership*, 송경근 · 김홍섭 역, 『최고경영자 예수』(서울: 한언, 1999).

51) Fleming, Jerry(2003), *Profit at Any Cost?*, 황을호 역, 『정직한 경영이 돈을 번다.

4. <기업-적용> 분야

기업이 성경적 경영 원리 혹은 기독교윤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한 개인의 개별적이고 분산된 행위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적용>의 출발 조건은 그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그리스도인 여부에 달려 있다. 기업에서는 모든 사람이 직위의 고하와 업무 영역에 관계없이 크든 작든 자신의 업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 공간을 가진다.

대부분 기업에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이다. <기업-적용> 영역에 속한 여러 문헌에서 그리스도인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믿음을 경영에 접목시키게 된 연결점 발견과 당시의 깨달음을 다루고 있다.⁵²⁾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영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은 경영과 신앙이 전혀 무관하게 여겨지던 때로부터, 생존 경쟁과 부패한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질문을 거쳐서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과정들이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로의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강력하게 일깨우고자 하는 한 그룹의 저자들로서 마샬, 실보소, 와그너, 힐먼 등은⁵³⁾ “일터 사역(Workplace ministry) 또는 “사업을 위한 기름부으심(Business anointing)이라는 말로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독실업인회와 같은 단체는 이러한 개념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경영 과정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직접적인 적용은 경영자의 경우 주로 리더십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전체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서

기독교와 경영윤리』(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8장.

52) Beckett, op. cit. 특히 5장~11장.

53) Rich Marshall, Ed Silvano, Peter Wagner, Os Hillman. 이들의 저술은 참고문헌을 참조.

사람 중심적이며 또한 종업원들을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 중심의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변화 역시 보통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지적한다.⁵⁴⁾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 매우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에서 거래 당사자로부터의 비윤리적 관행이나 불의한 요구 등에 직면하여 경영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⁵⁵⁾ 성경은 물론이고 실제 결정과정을 다룬 내용에 따르면 가장 자주 직면해야 하는 것이 ‘정직성’(integrity)의 문제라고 보인다.⁵⁶⁾

버켓, 러쉬, 츠닝 등은⁵⁷⁾ 경영자와 관련한 기독교윤리의 적용을 리더십, 조직, 의사결정, 지휘와 통제, 동기부여, 사회적 역할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전통적 목표로부터 보다 확대된 부르심에 기초를 둔 경영은 영적 리더로서의 태도, 조직의 운영, 의사소통 방법, 사람을 존중하는 일의 체계,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기여와 역할⁵⁸⁾에 대해 성경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관리자와 종업원의 수준에서 기독교윤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

54) Tamasy, Robert J. (ed.) (1991),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대구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완전한 성공(2): 가정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서울: CUP, 2000), 183~295. 이 책은 많은 지면을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할애하고 있다.

55) 예를 들면 뇌물의 수수, 성을 매개로 한 불의한 거래 등.

56) 김성주,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서울: 중앙 M&B, 2000)는 뇌물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정직성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드는 것,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포함한다.

57) Larry Burkett, Myron Rush, Richard Chewning. 이들의 저술은 참고문헌을 참조.

58) 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는 사례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는데 유한양행의 창업주 경우이다. 조성기, 『유일한 평전』(서울: 작은 씨앗, 2005)을 참조하시오.

영역 내에서 성경적 가치를 접목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 업무란 아무리 단순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routine)은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 내에서 관리자와 종업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태도는 업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성경적 가치는 정직성(integrity), 문제 해결 과정의 탁월성⁵⁹⁾, 충성심⁶⁰⁾ 등이다. 월터 해리스 2세는 보통 외부인의 눈에 매우 객관적이고 게다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므로 투명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회계처리 과정조차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정직성을 나타내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⁶¹⁾ 토마스 던커톤은 광고는 전형적으로 사실 이상으로 과장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나 이것 역시 정직성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⁶²⁾

기업을 선교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하고 민감하다. 가장 큰 변수는 (최고) 경영자의 그리스도인 여부와 기업에 대한 그의 기독교윤리의 가치 실현에 대한 태도이다. 그 다음의 변수는 (최고) 경영자의 파트너, 부하 경영자들, 관리자 및 종업원들의 그리스도인 여부이다. 이에 덧붙여 복잡성을 더하는 것이 법·제도상의 규정이다. 이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인다.⁶³⁾

59) Maxwell, John, Stephen Graves and Thomas Addington(2006), *Life @ Work*, 김용환 역, 『Life @ Work』(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장. 그리고 성경의 예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다(출 36:1).

60) “……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엡 6:5~7.

61) Chewing (ed) (1990), op. cit. ch. 6. 이러한 이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고민처럼 보인다.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보통의 CEO들의 비윤리적 행위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Fleming, op. cit. pp.90~91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이 목록에 있는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62) Ibid. ch. 5.

신앙을 둘러싼 기업 내부의 조화 혹은 갈등은 위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구체적으로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을 통해 나타나는데, 경영자의 신앙 정체성과 재정적 지원 형태, 전반적인 기업문화와 비(非) 그리스도인 구성원들의 이해 및 수용의 정도, 기업 차원에서 내부적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조차 복음 전파 활동의 종류와 깊이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독교 가치와 이윤 추구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성경적 경영을 하기 원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특히 선교적 경향이 강한테 갈등을 조정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사례로서는 믿음을 증거 하는 종업원을 경영자가 해고한 사례⁶⁴⁾, 최고경영자는 비(非) 그리스도인이지만 경영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므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사원들에게 사내에서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장려한 사례⁶⁵⁾ 등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만약 기업을 통한 복음 전파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창업 시점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그 사례가 널리 알려진 경우도 있다.⁶⁶⁾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을 거점으로 한 선교 전략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⁶⁷⁾

성경적 가치를 경영에 실제 적용하고자 시도한 많은 사례들에게서 보

63) 미국은 종교에 의한 차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며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Shorto, op. cit.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64) Marshall(2005), op. cit. 7장.

65) Shorto, op. cit. Intel에서 있었던 한 경영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66) Shorto, op. cit. 미국 미네소타 주 Otsega에 있는 Riverview 지방은행 사례 참조.

67) Yamamori, Tetsunao and Kenneth A. Eldred (eds) (2003), *On Kingdom Business*, 최형근 역, 『킹덤 비즈니스』(서울: 조이선교회, 2008).

이는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며 경영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에 관해 모범이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그 큰 조직의 경영에 ‘물’이라는 자원이 부족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고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므리바에서도 똑 같이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셨다.⁶⁸⁾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을 경영자들이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보자. “재정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몇 예들로서 학교 건립, 교회 건축 및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독교 단체 지원, 질병 퇴치를 위하여 의과 대학 및 의학 기술을 진전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사 지원 등을 볼 수 있었다.⁶⁹⁾

5. <국가-인식> 분야

국가 수준에서의 기독교 경제윤리는 지금까지의 개인이나 기업 수준과는 차원이 매우 다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 및 정책의 운영을 통해 작동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개인과 기업을 통치하기 때문이다.⁷⁰⁾ 개인이나 기업 수준에서는 한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즉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었지만 국가 운영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및 관습 속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정신이 녹아 있으며 그것

68) 마라의 물 사건(출 15:22~26)과 므리바의 물 사건(출 17:1~7).

69) 유일환(조성기, 2005), 워너메이커(전광, 2005), 록펠러(시걸, 2001), 이랜드 그룹(방선기, 1994) 등이다.

70) 물론 정부의 고위 관리나 대통령의 신앙이 법과 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정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이 국가 수준에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반영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체계와 작동 방식으로 표현된다.⁷¹⁾ 그러므로 변화가 있으려면 입법 과정과 함께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국가 통치의 영역 중 주로 조세, 노동(임금과 인권), 토지(부동산), 금융제도, 성장 정책, 무역, 시장에 대한 규제, 부의 분배, 환경 등에서 성경적 가치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맥락은 국가 정책이 이와 같은 영역들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복지과 국가적 경쟁력에 상당한 성과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⁷²⁾ 그러므로 몇몇 사람들은 경제 전체를 보는 관점을 성경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고 하기도 한다.⁷³⁾

경제에 대한 인식이 국가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문제의식 또한 매우 달라진다. 이에 대략 세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 먼저 사회적 정의에 관한 것으로 대표적인 문제로는 사회적 빈곤(심각한 빈부 격차), 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제공, 인권 보호 등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오랜 이슈들이며 여전히 해답들을 찾고 있다.⁷⁴⁾

둘째로는 경제 체제 또는 경제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위의 첫 번째 이슈들을 다루는 문제에 병행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체제

71) 때로는 이런 요소들이 매우 특징적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국가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면 노동에 관한 스웨덴의 특징들을 ‘스웨덴식 모델’이라고 부른다.

72) Miller, Darrow L.(1998), *Disciplining Nations: The Power of Truth to Transform Cultures*, 운명석 역,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서울: 예수전도단, 1999). 밀러는 믿음에 기초를 둔 국민들의 사고체계가 국가 차원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의 논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3) Halteman, James(1997), *The Clashing Worlds of Economics and Faith*, 김원주 역, 『신앙과 경제』(서울: 아가페, 1999). 그리고 황희영,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을 위한 시론」, 로고스경영학회, 제6권 제1호(Vol.13), 129~145.

74) 양명수, 『기독교 사회정의론-가복하신 하나님』(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은 이들과 같은 광범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 해석을 하고 있다.

혹은 시스템이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⁷⁵⁾

이 점에 대해서 20세기 초 독일의 종교사회주의 운동가들은 교회 내부가 아닌 삶의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과 경제 시스템의 성경적 해석이라는 두 개의 문제의식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사회주의를 통한 참여를 선택했다.⁷⁶⁾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서의 시대적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현재의 글로벌화와 같은 당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다. 국가 혹은 국제수준의 문제는 매우 장기간에 걸친 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고자 노력해왔다. 또 다른 하나의 예는 한 세기 동안 존재했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 급속히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졌으나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6. <국가-적용> 분야

국가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개

75) Hay, Donald A.(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전강수 외 역,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서울: IVP, 1996) 4~5장에서는 성경적 경제 원리를 기준으로 두 체제가 매우 세심하게 비교 분석되어 있다. 그 외에 이 두 체제를 비교하거나 혹은 시스템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는 저자들로는 황봉환, 『기독교 경제 윤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채수일(편), 『기독교 신앙과 경제문제』(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한국기독교윤리학회·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편), 『경제 문제와 기독교윤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등을 들 수 있다. 때로 이들은 새로운 체제의 관점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76) 정승훈, 『칼 바르트와 동시대성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07~124.

인과 기업을 다스리므로 국가 수준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를 적용하려면 필연적으로 정부에 속한 개인이나 관련된 기업이 꾸준히 법과 제도와 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 때 가능할 것이다. 링컨의 노예제 폐지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영역에서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성공적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현대 경제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수 세기 전 과거에는 종교개혁 이후 개혁 신앙의 이정표 역할을 한 몇 사람이 그런 예를 보여준다. 16세기에 루터는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것은 전 유럽에 확산되었고 그 후 서구 사회의 노동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 그 뿌리가 남아있다. 동 시대의 칼뱅의 청지기 의식은 개신교도의 경제생활에 중심적 가치로서 자리 잡았다. 그의 기여는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머물렀던 제네바에서 세계 개혁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8세기의 웨슬리는 청지기의식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아울러 회년사상을 중심으로 그것을 제도화하고 사회 운동으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였다.⁷⁷⁾

앞서 보았던 독일의 종교사회주의 운동가들의 경제 시스템 참여는 칼뱅의 청지기의의식이나 웨슬리의 회년사상의 전파와 달리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특성에 동조함으로써 교회 및 외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침투하는 영향력을 미쳤다.⁷⁸⁾

이 외에 근대 경제 부문에서의 독특한 기여는 토지 분야에서 찾을 수

77) Biéler, André(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와 김흥기,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참조.

78) 정치적 특성은 매우 강한 사회 침투 및 영향력 행사라는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믿지 않는 동조자들이 사회참여 과정에서 실천적 이슈로 인해 등을 돌리는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있다. 19세기 말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를 단일세로 하는 조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것은 여러 나라의 토지 개혁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이것은 성경의 희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소수 인원에 의한 토지의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소유를 막아보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⁷⁹⁾

20세기에 들어 가장 많이 다루어진 영역은 구조적 불의에 의한 사회적 빈곤, 즉 경제 운영 시스템의 뿌리에서부터 발생한 왜곡된 부의 분배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널드 사이더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불의를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⁸⁰⁾ 엠마누엘 수녀는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난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⁸¹⁾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슈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체제 수준의 논의를 하는 동시에 이 수준의 변화를 피함으로써 개선 또는 개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⁸²⁾ 이들은 사회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엘릴과 같이 가난의 문제를 정당이나 집단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⁸³⁾ 엘릴의 주장은 “부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문제 라는 것이

79) George, Henry(1879), *Poverty and Progress*,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서울: 비봉출판사, 1997)와 전강수·한동근,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서울: CUP, 2000) 참조.

80) Sider, Ronald J.(1997),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한화룡 역,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서울: IVP, 1998), 8장.

81) Emmanuelle, Soeur & Philippe Asso(2001), *Richesse de la pauvret*, 백선희 역, 『풍요로운 가난』(서울: 마음산책, 2001). 그러나 책에 제시된 내용으로 보면 저자가 다소 영지주의적 접근에 동의하는 듯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42~156 참조.

82) 시장 중심의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는 Duchrow, Ulrich(1998), *Alternatives to Global Capitalism*, 손규태 역,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서울: 한울, 1998) 참조.

83) Ellul, op. cit. p.138, pp.207~208.

며 경제 문제의 근원을 (개인 수준의) 영적인 것에서 찾고자 한다.⁸⁴⁾

사회적 변화의 원리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접근과 전체주의적(holistic) 접근이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개인 수준의 특성이 집단 속에서 지속 반복되면서 전체적이며 구조적인 특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⁸⁵⁾ 개인주의적 접근과 전체주의적 접근은 사회를 유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태도와 같은 개인적이며 영적인 특성이 자본 축적과 산업 형성 및 발달과 같은 경제 시스템적인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논증한 막스 베버이다.⁸⁶⁾

마지막으로 김진홍은 이스라엘의 토라농법의 예를 소개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성경적 원리가 적용된 성공적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⁸⁷⁾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로서의 특수성이 작용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적용되며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 차원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⁸⁸⁾

III.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출간된 기독교 경제윤리 관련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독교 경제윤리라고 부르는 큰 주제에 관해 어떤 문제

84) Ibid. pp.54~55. 이 표현에 대해 우리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필연적으로 영적인 것이 된다고 해석한다.

85) 그것을 프랑스 Convention 학파의 학자들은 micro-macro 접근이라고 부른다.

86)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서울: 문예출판사, 2006).

87) 김진홍, 『성경의 경제와 경영』(서울: 두레시대, 2001), 12~16.

88) Ibid. 특히 7, 8장.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문헌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의 수준으로 개인, 기업, 국가의 세 단계로 구분했고, 그리고 개념과 해석을 주로 다루는 인식과 실천적 적용을 다루는 적용의 두 영역으로 다시 구분했다. 그럼으로써 모든 문헌이 여섯 분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심 영역과 주안점이 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의 II장에서 다루었다. 다만 국가 수준의 문제의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헌들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 ‘칭지기 의식’으로 상당히 수렴하고 있다. 국내의 문헌은 <개인-인식> 분야와 <국가-인식> 분야에 집중되었고 또 다른 특징은 기업을 선교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서양의 문헌, 특히 미국의 문헌은 <개인-적용>과 <기업-적용> 그리고 <기업-인식>에서 강한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에 좀 더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인식 체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미국의 문헌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빛 문제를 다루는 실질적 해결 과정의 중요성과 가족의 가치를 삶 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임을 앞에서 언급했다.

우리는 각 문헌이 가지는 상대적인 위치를 주로 고려하여 짧게 특징 중심으로 서술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가진 이론적 혹은 신학적 개념으로 비판 중심의 기술을 하지는 않았다. 독자들 중에는 이것을 본 논문의 한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여섯 분야를 살핀 다음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기독교 경제윤리 문제의식의 핵심은 “어떻게 믿음을 경제생활에 적용하는가? 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다르다. 지식 혹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새롭게 깨닫거나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행위이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에 대한 반응 및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독교 경제윤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둘러싸고 인식과 적용 사이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따라 개인-기업-국가 수준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듣는다(인식).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의 넓은 영역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적용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대가 지불의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기업-국가 수준들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있다. 개인 차원의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 차원의 참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적 가치를 개인 수준의 일상에서는 적용해도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극단적인 경우 교회 내에서 개인 삶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와 국가 차원의 사회 운동에 몰입하여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는 제도와 집단에 속한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 속에 파묻어 두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학에서는 방법론적으로 크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로 구분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본래적으로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며 출발점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긴장은 궁극적으로 누구라도 한 개인 자신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

도하심을 받는 것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앞에서 다룬 여섯 분야들 사이의 긴장 관계는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점으로 하여 <개인-인식> 차원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해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나 기독교 경제윤리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 자신의 몫이다. 우리는 다만 경제에 관한 성경적 가치는 무엇인지,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쉽게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분야를 구분하고 특성을 간략히 덧붙여 설명했다.

본 논문의 한계는 필자의 이해의 경륜이 부족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하는 여지가 있고, 더 풍성한 자료 - 참고하지 못한 국내 문헌들, 그리고 많은 연구 논문들, 번역되지 않은 많은 외국의 문헌들 -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돈. 『살림의 경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2001.
-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경영 로드맵11』.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김동호. 『깨끗한 부자: 청부(淸富)』. 서울: 규장, 2001.
- _____.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 서울: 청림출판, 2005.
- 김성주.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서울: 중앙 M&B, 2000.
- 김승욱. 「한국 기독교경제학의 유형과 발전 방향」, 『신앙과 학문』 제13권 제1호. 2008, 9-44면.
-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서울: IVP, 2003.
- 김재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발전의 비전』. 서울: CUP, 1990.
- 김진홍. 『성경의 경제와 경영』. 서울: 두레시대, 2001.
- 김흥기.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대천덕.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서울: 흥성사, 2003.
- 박철수. 『돈과 신앙』. 서울: 예찬사, 2001.
- 방선기. 『기업경영과 하나님 나라』. 서울: 엠마오, 1994.
- _____. 『이리 가운데 분투하는 양을 위한 콘서트』. 서울: 브니엘, 2006.
- 손경구. 『돈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2002.
- 양명수. 『기독교 사회정의론 - 가락하신 하나님』.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유성은. 『행복한 부자』. 서울: 평단, 2008.
- 이성준.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기』. 서울: 요단, 2008.
- 이운재. 『성경속의 경제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정우 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2.
- 이채운. 『십일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서울: 미래사, 2006.
- 임성일. 『크리스처노믹스 - 크리스천의 경제관과 경제생활』. 서울: 쿠파출판사, 2004.
- 전강수·한동근.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 서울: CUP, 2000.
- 전 광.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정승훈. 『칼 바르트와 동시대성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조상국. 『크리스찬 경제학도를 위하여』, 서울: CUP, 1989.
- 조성기. 『유일한 평전』, 서울: 작은 씨앗, 2005.
- 채수일(편). 『기독교 신앙과 경제문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한국기독교윤리학회 ·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편). 『경제 문제와 기독교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한상화. 「칼빈의 경제윤리」,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황봉환. 『기독교 경제 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황호찬.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1996.
- 황희영.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을 위한 시론>, 로고스경영학회, 제6권 제1호 (Vol.13), 129~145.

번역서 및 외국 원서

- Alcorn, Randy(2003),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김신호 역. 『돈, 소유, 그리고 영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Alcorn, Randy(2001), *The Treasure Principle*, 유정희 역. 『부자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Avanzini, John(1992), *It's not Working Brother John*, 오태용 역. 『십일조를 잘 해도 왜 안 풀리죠』.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7.
- Avanzini, John(1990), *War on Debt: Breaking the Power of Debt*, 송원섭 역. 『채무의 영을 결박해야 산다』.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8.
- Beckett, John, *Loving Monday*, IL: Downers Grove, IVP, 1998.
- Biéler, André(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Burkett, Larry(1975), *How to Manage Your Money*, 김동윤 역. 『돈, 다스리기(1)』, 『돈,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3)』, 『올바른 돈관리(지도자용)』. 서울: 규장, 1993.
- Burkett, Larry(1975), *Your Finance in Changing Times*, 박정운 · 조성표 역.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서울: CUP, 1993.
- Burkett, Larry(1977), *What Husbands Wish Their Wives Knew About*

- Money, 김의자 역. 『가정 경제의 지혜』. 서울: 보이스사, 1994.
- Burkett, Larry(1990), *Business by the Book*, 김종근 역. 『성경 속의 경영학』. 서울: 엠마오, 1995.
- Burkett, Larry(1992), *Answers to Your Family's Financial Questions*, 박영옥 역. 『가이사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서울: 목회자료사, 1992.
- Chewning, Richard C. (ed.) (1989),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Foundations*, 로고스경영연구원 역. 『성경의 경영 원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Chewning, Richard C. (ed.) (1990),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 서울: IVP, 1993.
- Chewning, Richard C.. John W. Eby, J. Roels(1990), *Business through the Eyes of Faith*, 안동규 · 한정화 역.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서울: IVP, 1995.
- Cunningham, Loren(1980), *Is That Really You, God?*, 예수전도단 역.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서울: 예수전도단, 1989.
- Cunningham, Loren(1991), *Daring to Live on the Edge*, 문효미 역. 『벼랑끝에서 서는 용기』. 서울: 예수전도단, 1993.
- Duchrow, Ulrich(1998), *Alternatives to Global Capitalism*, 손규태 역.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서울: 한울, 1998.
- Ellul, Jacques(1950), *L'homme et l'argent: nova et vetera*, 2e édition complétée, 양명수 역. 『하나님이나 돈이냐』. 안양: 대장간, 1991.
- Emmanuelle, Soeur & Philippe Asso(2001), *Richesse de la pauvret*, 백선희 역. 『풍요로운 가난』. 서울: 마음산책, 2001.
- Fleming, Jerry(2003), *Profit at Any Cost?*, 황을호 역. 『정직한 경영이 돈을 번다: 기독교와 경영윤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George, Henry(1879), *Poverty and Progress*, 김운상 역.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판사, 1997.
- Griffiths, Brian (ed.) (1972), *Is Revolution Change?*, 한화룡 역. 『혁명만이 변화인가?』. 서울: IVP, 1989.
- Halteman, James(1997), *The Clashing Worlds of Economics and Faith*, 김원주 역. 『신앙과 경제』. 서울: 아가페, 1999.
- Hartman, Jack(1983), *Trust God for Your Finances*, 오태용 역.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4.

Hay, Donald A.(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전강수(외) 역.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서울: IVP, 1996.

Hill, Craig and Earl Pitts(2001), *Wealth, Riches and Money: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허령 역.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서울: 예수전도단, 2004.

Hillman, Os(2005), *The 9 to 5 Window, Gospel Light Publications*, 조계광 역. 『일터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Jones, Laurie Beth(1995), *Jesus CEO: Using Ancient Wisdom for Visionary Leadership*, 송경근 · 김홍섭 역. 『최고경영자 예수』. 서울: 한언, 1999.

Marshall, Rich(2000), *God @ Work*, 이선희 역. 『왕의 사역』. 서울: 서로사랑, 2005.

Marshall, Rich, *God @ Work Volume 2: Developing Ministers in the Marketplace* (Shippensburg: Destiny Image Publishers), 2005.

Maxwell, John, Stephen Graves and Thomas Addington(2006), *Life @ Work*, 김용환 역. 『Life @ Work』.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Meeks, M. Douglas(1989),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홍근수 · 이승무 역. 『하느님의 경제학』. 서울: 한울, 1998.

Miller, Darrow L.(1998), *Discipling Nations: The Power of Truth to Transform Cultures*, 윤명석 역.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1999.

Ozment, S.(1993),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박은구 역.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서울: 해안, 2004.

Rush, Myron(1983),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한석희 역. 『예수의 경영원리』. 서울: 요나, 1995.

Segall, Grant D.(2001), *John D. Rockefeller: Anointed with Oil*, 전은지 역.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1.

Sen, Amartya(1987), *On Ethics and Economics*, 박순성 · 강신욱 역. 『윤리학과 경제학』. 서울: 한울, 1999.

Shorto, Russel, Faith at Work, *New York Times*, Oct. 31, 2004.

Sider, Ronald J.(1997),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한화룡 역. 『가

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서울: IVP, 1998.

Silvoso, Ed(2002), *Anointed for Business*, 조성국 역. 『사업을 위한 기름부으심』. 서울: 순전한나드, 2004.

Tamasy, Robert J. (ed.) (1991),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대구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완전한 성공(1): 일터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CUP, 1999.

Tamasy, Robert J. (ed.) (1991),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대구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완전한 성공(2): 가정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CUP, 2000.

Wagner, C. Peter(2006), *The Church in the Workplace*, 이건호 역.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서울: WLI, 2007.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2006.

Yamamori, Tetsunao and Kenneth A. Eldred (eds) (2003), *On Kingdom Business*, 최형근 역. 『킹덤 비즈니스』. 서울: 조이선교회, 2008.

논문접수일: 2008. 10. 30

심사개시일: 2008. 11. 12

심사완료일: 2008. 11. 22